

기능올림픽 석공예 부문 금메달 획득

(사)한국석재협회 회원사 만평석재 소속으로 알려지



올 6월 11일부터 28일까지 18일간 스위스 상갈렌에서 개최된 제 3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석공예 부문에서 김재경(만평석재 소속) 씨가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이는 한국이 2년 연속 석공예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명실공히 선두의 위치를 과시했다. 게다가 2년 연속 금메달을 거머쥐게 한 만평석재의 김상규씨는 (사)한국석재협회의 감사직을 맡

고 있어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2차대전 후 혼란스러운 스페인 사회가 내놓은 시책중 하나였다. 근로정신을 배양하고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통해 사회정화와 기능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1947년 처음으로 수도 마드리드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이 경기가 국내에 한정되

지 않고 국제적 규모로 발전하였으며 격년제로 개최하는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6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가 창립되어 총 86회의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1967년 제16회 대회에 첫 출전한 이래 꾸준히 훌륭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제33회부터 제36회까지 4연패를 달성하여 총 13번의 종합우승으로 세계 제1의 기술력을 자랑할 바 있다.

시상

1위	12명
2위	6명
3위	4명
장려상	2명

특이
 ▶1,2,3위 입상자에게는 기능장려법에 의거, 매년 소정의 상사를 거쳐 일장급역의 기능장려금 지급.
 ▶1,2,3위 입상자에게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직종의 산업기사 사별명제.

석재탐방

21C 석재인의 자리매김



김성태 조양석재(주) 대표이사

현대를 살아가는 석공인들은 이제 단순한 기능공으로서의 단계를 벗어나 석재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기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실려, 부활한 장인정신으로 우리 것을 바탕으로 부단히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하여, 전통 석공예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창의적

재단 로스를 이용한 석재복합, 특수공법으로 시공한 전형적인 한국형 남궁묘를 연구개발하였으며, 전근대적 시공 및 가공방법을 현대화시켜 부가가치 향상 및 생산성 증대에 노력했으며, 석공산업에 필요한 석공예 기능인력의 양성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인 것은 단지 본인 한사람만의 성과에 그치지 않아야 하며 우리 석재산업 전반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다.

우리 석공인들의 실패와 성공의 오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선진적인 새로운 석재활용 공법을 부단히 개발하고 개선하여, 재작기간 단축과 인력단축, 원가절감을 혁신을 가져오고 싶은 보수가 필요치 않은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국제화에 힘써야

인 석공예 기술개발과 현대건축공법과 연계될 수 있는 시공공법을 개발하는데 입장서야 한다.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도태되는 논리 속에 한국 석재산업의 기동인 우리 석공인들은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실험정신, 도전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다. 이는 우리 석공인들이 앞장서서 석재문화의 창출을 인식하고, 도시 환경분야의 개선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세계수준의 기술보유를 하루빨리 확보하여 세계시장의 석재기술메카로서 우뚝서고자 한다.

본인이 43년간 석재업계에 종사하면서 부활한 장인정신으로 석조예술의 문화유산을 보급하고, 석공예 및 조형물 석재용 등을 제작·연구하고 발전시키는데 힘쓰고, 전통 석공예 기술의 연구개발로 조형예술품 시공방법의 개선, 석재

연구적 건축시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형성하고, 건축문화의 발전을 도모할 때이다. 전국 각지의 석재관련 건축물을 볼 때마다 우리 석공인들의 남다른 창의와 탁월한 기술이 배어나고 우수하고 정밀한 시공을 엿볼 수 있는 혼신의 정성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의 곁에서 일어나는 직업공정의 개선과 품질향상에 대한 노력, 정확하고 미세한 표현을 위한 직업도의의 개선 등 석재의 매 단계마다 우리의 아이디어와 혼이 스며든 석재활용 공법들이 부단히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석공인들은 늘 한자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석재산업 전반이 기술혁신과 세계로의 도약을 다지는 전도사로서 이론과 실제의 체계적인 깊이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후불 교통카드도 상호고속을 이 용하면 요금의 3%를 할인받을 수

광업진흥공사 사스여파로 남미시장공략 나서

사스(SARS)를 새로운 시장개척의 호기(好機)로 삼아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대한 광업진흥공사(사장 박준택)가 그동안 관심을 덜 쏟았던 남미(南美) 광산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이유는 올해 예정했던 중국과 동남아시아 광산에 대한 자원조사가 사스 때문에 유보되면서 재빨리 남미쪽으로 눈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광진공은 이에 따라 해외조사차장을 단장으로 한 탐사팀

을 원래 코스타리카 동쪽 탐사를 위해 파견했다.

광진공 관계자는 “사스 여파로 중국 등 동아시아 광산을 대체할 만한 양질의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남미 국가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광산 지역인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한정하지 않고 양질의 광물자원이 있다면 콩골,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에도 개발을 위해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팔당호 주변 음식·숙박업소 규제

복합건축물 허용면적 기존 800㎡에서 400㎡미만으로



수질오염으로 물살을 맑고 있는 팔당호. 대안사업이 사용된다

팔당호 주변 개발 규제 강화로 앞으로 팔당호 주변 상수원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대형물류창고 및 숙박업, 음식원 용도의 건물은 제한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팔당호 주변의 규

는 사해가 대거 발생함에 따라 허용면적을 800㎡미만으로 제한하며, 숙박업소나 음식점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허용면적도 800㎡에서 400㎡미만으로 줄어든다. 한편 갈프연출정은 농약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특별대책 구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특별대책지역내의 광물 및 석재 채취와 개발도 산출과외의 수질오염 발생에 대한 우려로 일체 금지된다. 또한 외지인이 현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거주자 확인서, 납세자료 제출 등 현지인 확인절차를 더욱 강화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 고사 아래서 상공시설의 공장 변형, 양면군 규제 완화, 복합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난개발이 계속되었다”며 이같은 난개발을 막아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해 현행 미비점을 더욱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설치 쉽고 오래가는 하수관 개발

강원대 연구센터 KT마크 획득

강원대 석재복합 신소재제품 연구센터(RRC,소장 연구석)는 “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MMA) 계열 폴리머 복합소재를 이용한 하수관용 제품”으로 KT마크를 획득했다.

대학 연구소가 KT마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연구센터는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95년 설립됐으며 그동안 각종 석재제품을 이용한 신소재와 신제품의 연구를 해왔다.

이번에 KT마크를 받은 하수관용 제품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의 하나로 연구된 것이다.

이 제품은 MMA 재료를 활용한 폴리머 복합소재를 이용한 것으로 하수관 이용관, 맨홀 등으로 구성된다.

MMA 폴리머 복합소재는 기존의 폴리머 복합소재에 비해 작업성이 뛰어나고 제품제조가 용이하

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또한 강도가 높고 내약품성이 우수해 기존 소재로 만든 하수관로용 제품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플라스틱 하수관에서 발생하기 쉬운 변형성과 시멘트계 하수관의 취약점인 내식성을 상당 부분 개선했다는 것이다.

제품 가운데 하수관은 고강도의 재질로 된 내·외면에 고강도 폴리머 모트타르층으로 중심부를 채운 샌드위치 형태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용관은 하수관과 동일한 소재와 공법으로 제조됐으며 맨홀은 현장에서 간단히 조립할 수 있도록 5개 부분으로 나뉜 구조로 되어 있다.

연구센터는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한 기업체와 함께 올해 안으로 공장을 건립하고 내년부터는 제품 시판에 나서 계획이다.

건설업체 재개발 수주 ‘뿔튀기’

가계약 수준 내용 공시 투자자들 ‘흔란’

최근 대형 건설업체들의 주택공사 수주 공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데 이들 수주 공시의 신중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적 시공권 확보가 불투명한 데도 가계약 수준의 내용을 공시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대규모 수주 확정 재료로 오인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7월부터 [주거 및 도시환경 정비법]을 시행키로 함에 따라 건설업체

마구잡이식 수주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법이 시행되면 시공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계약 상태인 수주시식을 공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공시에 사업추진 일정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환기시키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 사업 계약을 정확한 법적 효력, 사업일정상 나타날 수 있는 변수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투자자에게 알려 투자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속버스 후불 교통 카드 나와

상상카드는 서울-인천 직행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상호고속과 업무재휴를 맺고 후불 교통카드 서비스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상상카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시로 서울-인천 노선에서 상호고속을 이용하는 2만여명의 승객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후불 교통카드도 상호고속을 이용하면 요금의 3%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요금 결제는 시외버스 노선과 구간 길이가 다른 것을 감안하여 지하월 후불 교통카드처럼 승차할 때와 하차할 때 각각 해야하며 이용액은 매월 1차례 다른 신용카드 대금과 함께 결제하면 된다.

상호고속은 인천의 주요지역에서 서울의 인천, 서울역, 강남역 등을 직행 운행하는 운수회사로 현재 서울-인천 8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공장 전경)

- ★ 석재시공 이제 전문가에 맡기십시오!
- ★ 완벽한 품질시공으로 고객만족을 창출하는 기업
- ★ 각종 국·내외석 판매 및 시공

ISO 9002 인증

KS A 9002 · ISO 9002

(주) 평 곡 건 설
대표이사 차 원 희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96-30
전화:(043)233-3313~5 팩스:(043)233-3317
E-mail:pg3314@chollian.net
주소: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77-2
전화:(02)538-8647~8 팩스:(02)538-8750
공장:충북 청원군 강내면 담곡리 산 34-9
전화:(043)232-0504 팩스:(043)234-0504

